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에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연준 관리들, 금리 인하 시기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사

[미국 금융]

- WSJ: 미증시는 더이상 빅테크가 주도하지 않는다
- Bloomberg: 비트코인, 랠리 계속... 현재 7만2천불 상회

[주택]

- CNBC: 바이든, 첫 주택 구입자들에 10만불 세금 감면 제안

[미국 생활]

- WSJ: 많은 미국인, 401(k)를 저축금으로 활용

[에너지]

- CNN Business: 유가,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

[회사 보험]

- CNN Business: 미 정부, 사이버 공격 혼란에 대응해 보험사 선지급 촉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생성형 AI에서 월마트의 빠른 성공 ... 구글이 걱정해야
- CNBC: McDonald등, 선벨트에 집중 ... 인구 급증 탓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코참 회원사 로펌인 Lewis Brisbois Bisgaard & Smith LLP가 1월 1일부터 시행된 '기업 투명성 법' 관련 자료(한글본 및 영문본)를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한글본

영문본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Officials to Signal Interest Rate Cuts Are Getting Closer 연준 관리들, 금리 인하 시기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사

- 지난 20년간 금리를 사상 최고치로 올린 후 8개월이 지난 현재, 연준 제롬 파월 의장과 관리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.
- 파월 의장은 지난주 의회에 출두해서 “인플레이가 2%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좀 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”면서도 인하 시기가 멀지 않다고 말했다.

- 다른 일부 관리들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물론 연준은 이달 19일부터 양일간의 회의에서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
- 투자자들은 신규 고용 및 인플레이 때문에 금리가 변동될지에 대해,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분기별 금리 전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It Isn't Just Big Tech Propelling Gains in the Stock Market Anymore 미증시는 더는 빅테크가 주도하지 않는다

- 미국의 강력한 성장으로 투자자들은 소수의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다.
- 월스트리트는 미국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악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. 이는 더 작고 위험한 주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. S&P 500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33% 상승했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연준이 트레이더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 자산에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Bitcoin Tops \$72,000 for the First Time as Rally Builds Steam 비트코인, 랠리 계속... 현재 7만2천불 상회

-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7만2천불을 돌파하며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, 특히 관련 상장 지수 펀드에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해들어 상승률이 70%에 거의 다달았다.
- 월요일 4% 상승한 7만2천2백34달러를 기록했고, 작은 토큰들도 동반 상승했다.
- 미 인플레이에 대한 주요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상승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CNBC: Biden proposes \$10,000 tax breaks for first-time homebuyers, 'starter home' sellers

바이든, 첫 주택 구입자들에 10만불 세금 감면 제안

-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 가구에 연간 5천불씩 2년 동안 모기지 구제 크레딧 즉,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
- 그는 또한 '스타터 홈'을 다른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중산층 가구에 최대 1만달러의 크레딧 제공 방안도 제안했다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방안들이 주택 구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.

CNBC 기사

[미국 생활]

WSJ: More Americans Are Treating Their 401(k)s Like Cash Machines

많은 미국인, 401(k)를 저축금으로 활용

- 많은 미국인이 401(k) 계좌에 가입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금으로 활용하고 있다.
- Vanguard Grou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1(k) 계좌 가입자가 재정적으로 긴급한 상황 때문에 계좌에서 조기 인출한 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작년에 전체 플랜 가입자의 3.6%가 조기 인출했는데 이는 2022년의 2.8%와 팬데믹 이전의 평균인 2%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.

WSJ 기사

[에너지]

CNN Business: Gas prices have surged to four-month highs. Don't panic

유가,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

- AAA에 따르면 유가가 1월 중순 갤런당 3.07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, 금요일에 전국 평균 갤런당 3.40달러로 상승했다. 이는 4개월 만에 최고치이다.
- 이러한 빠른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협하고 일부 미국인들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.
- 해당 추세가 지속되거나 가속화된다면,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는 연방의 잠정적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회사 보험]**CNN Business: US government calls for insurance companies to make advanced payments following cyberattack disruption****미 정부, 사이버 공격 혼란에 대응해 보험사 선지급 촉구**

- 지난 일요일 미 정부는 병원과 약국의 보험 처리 시스템에 지장을 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, 보험 회사들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료를 선지급할 것을 권고했다.
- 해당 사이버 공격은 연간 1백50억건의 의료 거래를 처리하는 의료 IT 대기업 UnitedHealth Group의 계열사인 Change Healthcare에 “중대한 영향”을 미쳤다.
- CNN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전국의 약국과 병원에서 처방전 청구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CNBC: Why Walmart’s quick success in generative AI search should have Google worried****생성형AI에서 월마트의 빠른 성공 ... 구글이 걱정해야**

- 월마트가 원스톱 방식으로 개별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검색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.
- 월마트 CEO인 Doug McMillon는 “가장 기대되는 것은 생성형 AI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 중심의 검색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.”이라고 말했다.
- 인사이드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Jacob Bourne은 “이것이 온라인 소매업체의 표준이 될 것이다.”고 언급했다. 또한, “구글이 걱정하는 것은 검색 전반에 관한 것이며, 이것이 구글 검색에 치명타가 될지가 의문이다.”고 덧붙였다.
-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무엇을 살지 검색하는 대신, 소매업체의 생성형AI가 구체적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선택지로 줄여준다면 소비자의 시간 절약 및 기업의 직접적 충성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CNBC 기사

CNBC: McDonald’s and other restaurant chains look to the Sun Belt for growth as population soars

McDonald등, 선벨트에 집중 ... 인구 급증 탓

- 선벨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, 맥도날드나 포티요와 같은 레스토랑 체인이 향후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해당 주에 주목하고 있다.
- 고객들은 중서부와 북동부에서 Texas, Florida 그리고 North Carolina와 같은 주로 이동하고 있다.
- JP모건에 따르면, 맥도날드는 2027년에 미국에서 900개의 신규 매장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매장이 플로리다, 텍사스, 애리조나,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할 예정이다.
- 기업 친화적이라는 선벨트의 지역 평판도 레스토랑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침체 전망했던 월가거물들, 빛나간 예측 인정하지만 경계심 유지

다이먼 2년전 "경제 허리케인" 경고...달리오 '퍼펙트 스톱' 언급 비관했던 전망 현재까지 엇나가..."경제 위험요인 여전" 시각 견지

월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들이 1~2년 전부터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경고해왔지만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9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월가 거물들은 자신들의 전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경계심을 낮출 때가 아니라고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.

보도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앞선 2022년 6월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에서 "여러분이 알다시피 난 (경제에) 먹구름이 끼었다고 말한 바 있다"면서 "그 말을 바꾸겠다. 그건 허리케인이다"라고 발언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.office@kocham.org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